

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## 이슈브리프

서비스형 뱅킹(BaaS)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  
EU 'Fit for 55'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# 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## 이슈브리프

서비스형 뱅킹(BaaS)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 .....	1
EU 'Fit for 55'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 .....	3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.....	6
--------------------	---



# ‘서비스형 बैं킹(BaaS)’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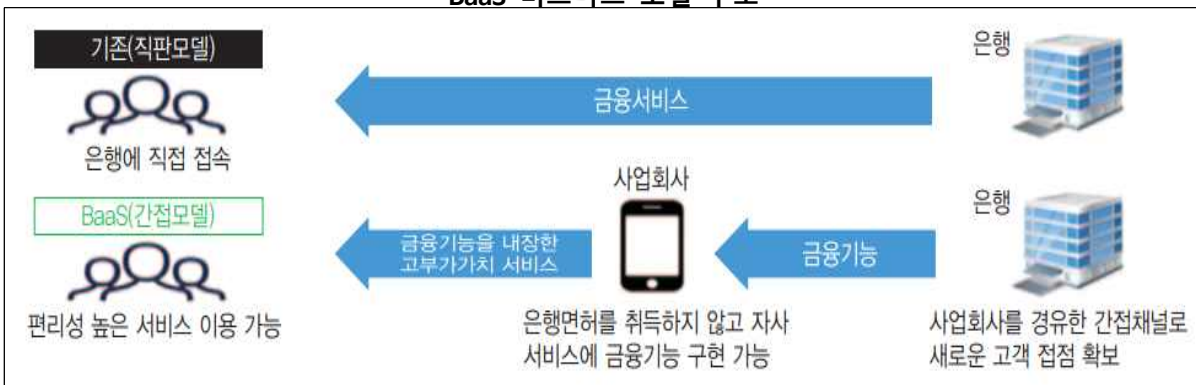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이재준 (june97@kdb.co.kr)

- ◆ 오픈뱅킹의 확산과 함께 ‘서비스형 बैं킹’(BaaS)이 부상하면서 해외에서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제휴를 통해 고객 앞 새로운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 중
- ◆ 국내에서도 BaaS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은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BaaS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

## □ 최근 금융의 개방화 물결에 따른 오픈뱅킹의 확산과 더불어 금융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‘서비스형 बैं킹(BaaS, Banking as a Service)’이 부상할 전망

- BaaS는 은행(금융 라이선스 소지자)이 서비스를 기능 단위로 모듈화하여 사업 회사(핀테크 등 비은행 기업)에게 온디맨드(On-Demand, 주문형) 형태로 제공하는 업태를 총칭
  - BaaS 기법은 사용자(금융소비자)가 평소 이용하는 사업회사 앱에 은행서비스를 삽입시켜 제공되는 방식\*으로, 은행은 새로운 고객과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 회사는 라이선스와 막대한 인적·물적 투자 없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
  - \* 은행 서비스가 사업회사의 브랜드 상품을 통해 제공(은행의 플랫폼이 아닌 사업회사의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)되기 때문에 BaaS를 흔히 ‘White Labeling Banking’이라고 부르기도 함

BaaS 비즈니스 모델 구조



자료 : 한국금융연구원(2021.4)

- BaaS는 은행의 자원을 외부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오픈뱅킹과 유사하지만, 정부 정책에 따라 은행의 API\*를 개방하는 오픈뱅킹과 달리 은행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은행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  - \*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: 특정 프로그램의 데이터나 기능을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 규칙

BaaS와 오픈뱅킹 비교

구분	BaaS	오픈뱅킹
공통	은행이 제3자(핀테크 등 비은행 기업) 앞 API 제공	
접근범위	기능에 대한 접근(읽기·쓰기 권한)	데이터에 대한 접근(읽기 전용)
제3자의 활용	은행 서비스를 자사 상품과 통합	자사 상품에 은행 데이터를 활용

□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BaaS를 사용하는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- 미국의 그린닷(Green Dot)은 '15년 BaaS 모델 수립을 시작으로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고객 경험을 제공
  - 차량 공유업체 우버 기사를 위한 '우버체크카드'를 출시, 기사가 당일에 보수를 수령하는 기능 제공(과거 일주일 정도 걸리던 보수 지불처리 과정 개선)
  - 주식 온라인거래 플랫폼인 스테시(STASH)와 제휴, 비자카드를 연계한 스테시 직불카드 발행(스테시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그린닷 계좌와 연계해 관리하고, 비자 네트워크에 포함된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 가능)
- 라이선스가 없는 애플과 소비자접근이 필요한 골드만삭스가 제휴하여 애플카드 출시(애플은 디자인과 브랜딩, 골드만삭스는 신용평가 등 후선 업무 담당)
  - \* 애플상표를 단 골드만삭스 신용카드는 2%의 캐시백 및 애플의 디지털월렛에 은행 계좌를 연계해 문자로 돈을 보내는 서비스 등 제공
- 독일의 솔라리스뱅크(Solaris Bank)는 '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기술 기업'을 지칭하며 계좌관리, 카드, 결제 등의 금융서비스 API를 기업에 제공
  - \* 솔라리스뱅크를 이용하여 은행업을 하고 있는 펜타(PENTA)는 전직원 비자카드 발급, 무료 비용 관리 등 기업 고객 앞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

□ 현재 국내의 BaaS 관련 금융서비스는 미미한 수준\*이나, 향후 BaaS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

- \* KB증권, 핀테크사가 필요로 하는 증권 인프라를 제공하는 BaaS를 도입, 핀테크사와 제휴 추진 중
  - '21.2월 KB증권은 핀테크 기업인 (주)웰스가이드의 앱에 KB증권의 Open-API 탑재 후 국내 최초 연금통합관리 앱인 '마이 머플러' 오픈(계좌개설부터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연금서비스 이용 가능)
- 소비자의 새로운 금융서비스·고객경험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은행은 다양한 기업과 상생을 위한 제휴를 강화하고 핀테크 기업은 '은행화'하려는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
- 이에 따라, 국내 금융기관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\* 등에 따른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더불어 BaaS의 서비스화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 필요
  - \* 당초 '21.8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년 초로 잠정 연기

# EU 'Fit for 55'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 
 곽병근 (bk0611@kdb.co.kr)

- ◆ EU는 '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가속화
- ◆ 전기차 분야 고성장 핵심시장인 유럽에서 'Fit for 55'는 완성차업체들의 순수전기차(BEV, Battery Electric Vehicle)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

## □ EU 집행위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'Fit for 55' 발표(21.7.14)

- 'Fit for 55'는 '30년 탄소배출량을 '90년 대비 55%를 감축하겠다는 EU의 상향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
  - EU는 이미 '유럽그린딜\*'로 감축 목표 상향(50~55%)을 검토하고, '유럽기후법\*\*'으로 '30년 감축 목표를 '90년 대비 40%에서 55%로 상향한 바 있음
  - 이를 구체화하여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,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및 강화 등을 포함한 12개의 관련 법 제·개정, 1개 신규 제도 제안 등을 금번에 발표
    - \* EU는 '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'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계획을 발표('19.12월)
    - \*\*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그린딜의 법제화를 위한 법률, '50년 탄소중립 목표 및 중간목표 설정, 자금 기구,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'유럽기후법' 제정(21.6월)
- 자동차 분야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 강화, '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,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등의 전기차 판매 촉진 정책이 포함
  - '30년 EU내 판매되는 신차의 평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승용차는 37.5%에서 55%, 승합차는 31%에서 50%로 강화하고 '35년에는 모두 100% 달성
  - '35년부터 EU 27개 회원국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(PHEV), 하이브리드(HEV)를 포함하여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신차의 판매를 금지\*
    - \* 통상적으로 전기차(EV)는 순수전기차(BEV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PHEV)를 지칭
  - 전기차 충전소를 주요 도로의 60km마다 설치하여 '30년 350만개, '50년 1,630만개 보급

'Fit for 55' 자동차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

구분	승용차(Cars)		승합차(Vans)	
	기존	개정	기존	개정
2025	15%	→ 15%	15%	→ 15%
2030	37.5%	→ 55%	31%	→ 50%
2035	없음	→ 100%	없음	→ 100%

자료 : EUROPEAN COMMISSION('21.07.14)

'Fit for 55' 전기차 충전소 보급 목표

구분	충전소 보급	비고
2025	100만개	60km마다 최소 300kW(~'30년), 600kW(~'35년) 출력 충전소 설치
2030	350만개	
2040	1,140만개	
2050	1,630만개	

자료 : EUROPEAN COMMISSION('21.07.14)

□ EU 전기차(BEV, PHEV) 시장은 지속 성장과 더불어 내연기관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 진행 중

- EU 전기차 시장은 지난 5년간 지속 성장해왔으며, '20년 처음으로 100만대 돌파
  - 환경규제 강화,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\* 등으로 '20년 1,046천대가 판매되어 전년대비 169.7% 증가(글로벌 전체 판매의 32.3%\*\*)
  - '21년 상반기는 802천대가 판매되어 전년동기대비 169.9% 증가하는 등 '21년에도 큰 폭의 성장 예상

\* 독일(최대 3,000→6,000유로), 프랑스(최대 6,000→7,000유로), 이탈리아(최대 4,000→6,000유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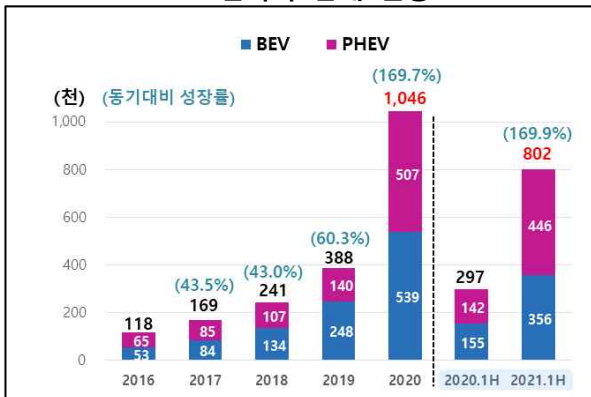
\*\* '2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3,240천대 추정(EV Volumes)

- EU 신차판매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은 '20년 10%를 초과했으며, '21년 상반기 15%를 기록하는 등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

- '20년 EU 전기차 판매의 78.8%를 차지하고 있는 5개국\* 중심으로 진행

\* 독일(394천대), 프랑스(185천대), 스웨덴(94천대), 네덜란드(89천대), 이탈리아(59천대) 등 5개국 판매는 824천대로 전체 승용차 판매의 78.8%를 차지(ACEA)

EU 전기차 판매 현황



주 : UK 실적 제외('16~'18)  
자료 : ACEA, 당행 재구성

EU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(3개년)

구분	2018	2019	2020	2021.1H
EU전체	1.9%	3.0%	10.5%	15.0%
독일	2.0%	3.0%	13.5%	22.5%
프랑스	2.1%	2.8%	11.3%	15.6%
스웨덴	8.0%	11.3%	32.2%	39.9%
네덜란드	6.7%	15.0%	24.9%	19.7%
이탈리아	0.5%	0.9%	4.3%	7.7%

주 : 승용·승합차 기준, '20년 전기차 판매 Top5 국가  
자료 : ACEA, 당행 재구성

□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차종 전동화 전략을 수립·이행 중에 있으나, 'Fit for 55'로 인해 유럽시장에서 BEV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는 상황

-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'30~'40년까지 전기차가 급성장하는 유럽과 중국 시장 우선의 전차종 전동화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 중
  - (폭스바겐) '30년까지 유럽시장내 전기차 판매 비율을 70%로 확대할 계획으로 매년 1개 이상의 BEV 모델 출시를 목표
  - (GM) '25년까지 최소 30종의 신형 BEV를 출시하고 '35년까지 전차량 모델을 BEV로 전환

- (볼보) '25년까지 글로벌 판매의 50%를 BEV로 구성하고, '30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차종을 BEV로 전환할 계획
- 국내 완성차업체도 유럽 등 핵심시장 중심의 전기차 전환 전략을 발표
  - (현대) 지역별 차별화 전략으로 '30년부터 핵심시장(유럽, 중국, 미국)에서 BEV 전환을 우선 추진, '40년에는 핵심시장의 전차종 전동화 전략 수립\*
    - \* 현대차('20.12.11) CEO Investor Day, 현대차('21.07.06) 2021년 지속가능성 보고서
  - (기아) '26년까지 BEV 11개 차종(전용 7개, 파생 4개) Full-Line Up을 구축하고 '30년에는 주요시장(유럽, 중국, 북미, 국내)의 BEV 판매 비중 34%를 목표\*
    - \* 기아차('21.2.9) CEO Investor Day, 지역별 목표는 유럽 47%, 중국 21%, 북미 26%, 국내 4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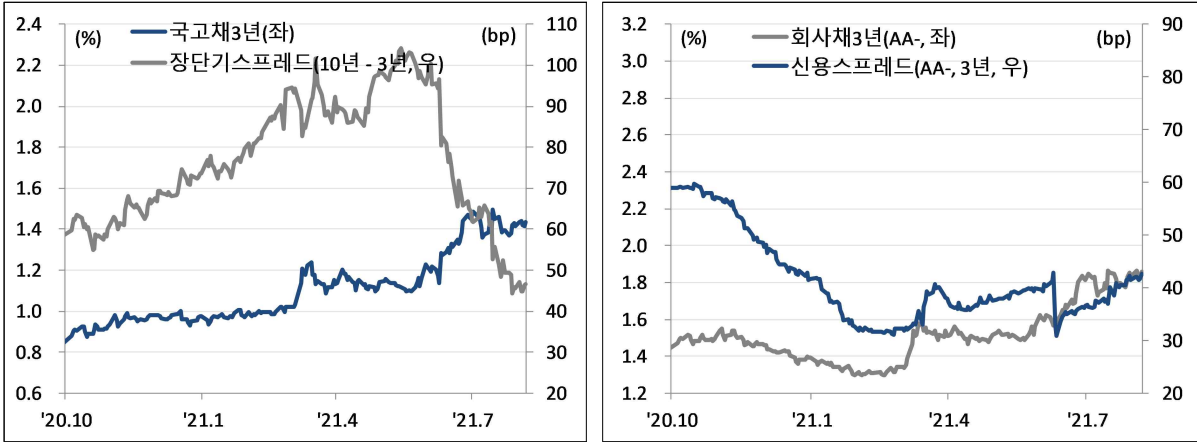
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전동화 목표 현황

완성차	전동화 비중	차량 종류	달성 목표연도
현대*	100%	BEV	2040
폭스바겐*	70%이상	BEV	2030
볼보	50%	BEV	2025
	100%	BEV	2030
포르쉐	100%	BEV, PHEV	2035
아우디	100%	HEV	2030
	100%	BEV	2033
GM	100%	BEV	2035
재규어	100%	BEV, PHEV	2025
포드	100%	BEV, PHEV	2026
	100%	BEV	2030
BMW	50%이상	BEV	2030
Mini	100%	BEV	2030
르노	65%	BEV, PHEV, HEV	2025
	90%	BEV, PHEV, HEV	2030
다임러	25%이상	BEV	2025
혼다	100%	BEV, PHEV, HEV	2040
도요타	1백만대 이상	BEV, FCEV	20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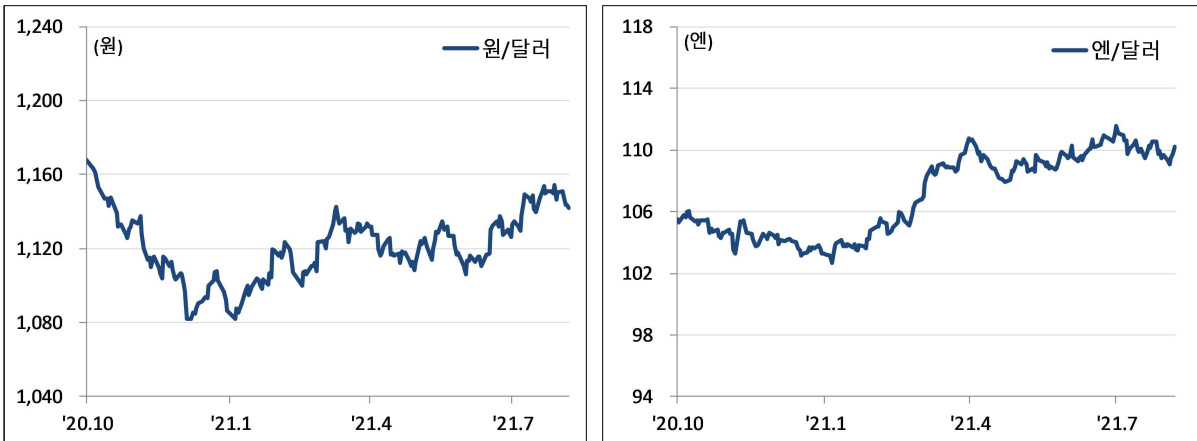
주 : 현대(유럽, 중국, 미국), 폭스바겐(유럽) 등은 핵심시장 중심으로 우선 추진  
 자료 : EUROPEAN COMMISSION('21.07.14) amendment-regulation-CO2-emission-standards-cars-vans  
 현대자동차('20.12.11) CEO Investor Day, 현대자동차('21.07.06) 2021년 지속가능성 보고서

# 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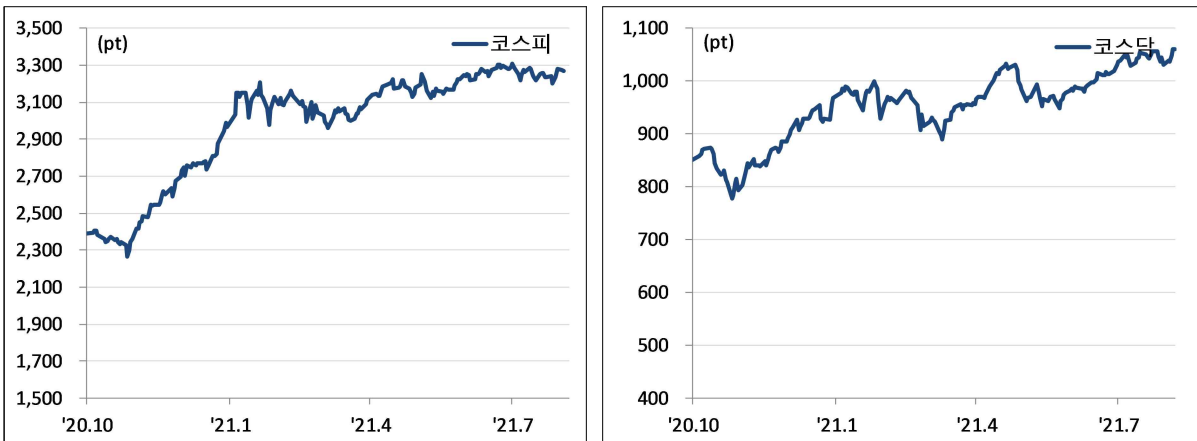
**금리** 국고채3년 1.433% (1.6bp ↑), 신용스프레드 42.6bp (1.1bp ↑)



**환율** 원/달러 1,142.1원 (8.2원 ↓), 엔/달러 110.24엔 (0.59엔 ↑)



**주가** 코스피 3,270.36pt (2.12% ↑), 코스닥지수 1059.8pt (2.78% ↑)



\* ( 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#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939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**인터넷**            [rd.kdb.co.kr](http://rd.kdb.co.kr), [kdb.co.kr](http://kdb.co.kr)  
**문의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 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